서울시 시민제안 · 교통/주차

앱 하나로
서울의 모든 공유주차를

서울시가 운영하는 **‘공유주차 통합 허브’**를 만들어
흩어진 공유주차 앱을 하나로 연결해 주세요.

① 시민은 앱 하나로 검색·예약

동네마다 다른 공유주차 앱을 찾아 설치하고 가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

② 배정자는 한 번 등록으로 더 많은 수익

공유시간을 한 번만 등록하면 모든 업체 앱에 노출되고,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합니다.

③ 민간 업체는 그대로, 서울시는 연결만

기존 앱과 결제 시스템은 유지합니다. 서울시는 중립적인 ‘연결 표준’과 ‘공통 창구’를 맡습니다.

④ 새 주차장을 짓지 않고 늘어나는 주차면

이미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의 빈 시간을 더 잘 쓰는 가장 저렴한 주차 공급 방법입니다.

제안일 2026. 11. · 본문의 위첨자 번호는 마지막 쪽 ‘근거 자료’의 번호입니다. 모든 근거는 서울시·자치구·의회의 공개 자료와 업체 공개 정보입니다.

1 이런 경험, 있으신가요?

> 친구 집 근처에 차를 대려고 공유주차 앱을 켰는데 빈자리가 없습니다. 알고 보니 그 동네 거주자우선주차면은 **다른 회사 앱**에만 올라와 있었습니다. 또 앱을 깔고, 회원가입하고, 본인인증하고, 카드를 등록합니다. 다음 주에 간 다른 구에서는 **또 다른 앱**이 필요합니다.

지금 서울의 공유주차는 **자치구마다 협약한 업체가 다르고, 업체마다 앱이 따로** 있습니다. 중랑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개 업체 앱이 각각 운영되면서 **"공유주차 이용에 혼선"**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.[67] 동작구는 2개 업체,[59] 강남구는 또 다른 조합의 업체 앱으로 공유주차를 운영합니다.[39]

4곳 이상
서울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에 참여하는 업체 앱
(모두의주차장·파킹프렌즈·주만사·파킹위드 등)

5,027개소
서울주차정보가 이미 제공하는 주차장 정보
(2025년 12월 말 기준)[10]

시민, 배정자, 서울시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

누가	지금 겪는 문제
이용 시민	어느 앱에 자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한 앱에서 "없음"이 나와도 정말 없는 건지, 다른 앱에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앱마다 가입·인증·결제 등록을 반복해야 합니다.
배정자 (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은 주민)	한 업체 앱에만 등록하면 그 앱 이용자에게만 보입니다. 여러 앱에 올리면 중복 예약을 직접 막아야 합니다. 어느 업체가 수익이 더 좋은지, 수수료가 얼마인지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.
서울시·자치구	업체마다 보고 형식이 달라 실제 공유시간, 예약 성공률, 배정자 수익, 민원을 서울 전체에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. 한 업체가 구획을 독점하면 그 구획은 다른 앱 이용자에게 닫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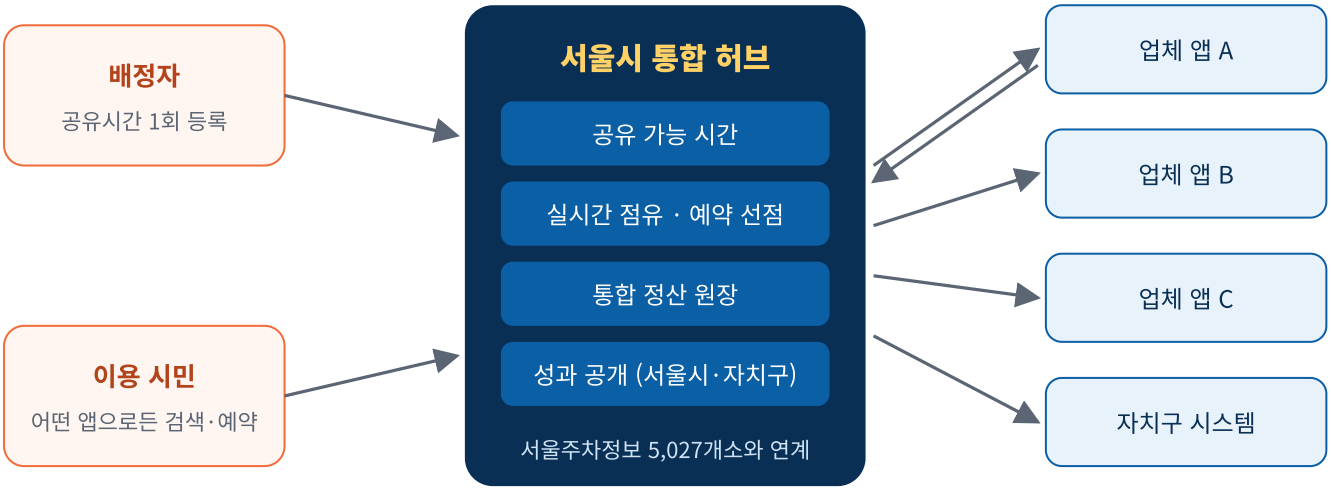
> **핵심은 '업체가 많다'는 것이 아닙니다.** 경쟁은 좋은 서비스를 만듭니다. 문제는 **주차면 정보와 예약 정보가 업체마다 갇혀 있어서**,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시민이 찾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

공유주차는 가장 싼 주차장입니다

서울시는 과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20%만 공유되어도 **주차장 신설비용 1조 2천억 원 이상**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.[47] (2018년 자료이므로 현재 수치로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.) 서울시는 이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공유사업 지원 방향을 담았고,[52]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,[48] 자치구 공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필요한 것은 **흩어진 공급을 한데 모으는 연결 고리**입니다.

2 제안: 서울시 공유주차 통합 허브

서울시가 **중립적인 연결 허브**를 운영해 주십시오. 허브는 민간 앱을 없애는 새 앱이 아닙니다. 모든 업체가 같은 표준으로 주차면 정보를 주고받게 하고, 시민에게는 서울 전체를 한 번에 보여 주는 **공통 창구**입니다.



표준 API로 양방향 연결 · 업체 앱과 결제는 그대로

허브가 하는 일 (서울시)

① 하나의 지도에서 통합 검색

거주자우선주차 공유면, 공영주차장, 개방 부설주차장, 민간 공유면을 한 지도에서 보여 줍니다. 결과마다 어느 업체 앱으로 예약할 수 있는지 함께 표시합니다.

② 공유시간 1회 등록, 모든 앱에 노출

배정자가 어느 앱에서 등록하든 허브를 거쳐 모든 참여 업체에 공유됩니다. 업체가 구획을 독점할 수 없게 됩니다.

③ 이중 예약 방지

허브가 예약을 먼저 잡고(선점) 확정하는 기준 장부를 가집니다. 두 업체가 같은 자리를 동시에 파는 일을 막고, 예정 출차시간도 공유해 다음 예약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.

④ 투명한 정산

거래마다 이용요금, 업체 수수료, 운영비, 배정자 지급액을 나눠 기록합니다. 배정자는 월별 정산서로 실제 이용시간과 순수익을 확인합니다.

업체가 계속 하는 일 (민간)

앱, 회원, 결제, IoT 센서, 현장 관리, 고객 응대는 지금처럼 업체가 맡습니다. 업체는 허브를 통해 **서울 전체의 공유면을 자기 앱에서 팔 수 있게** 되고, 거래가 성사되면 정해진 수수료를 받습니다. 서울시는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, 업체는 투자한 시스템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. 인천교통정보센터가 공영주차정보를 기관·민간에 공개 API로 연계하는 사례처럼,[31] 공공이 '표준과 연결'을 맡는 방식은 이미 검증된 모델입니다.

3 누구에게 무엇이 좋아지나

🚗 이용 시민

- 쓰던 앱 하나로 서울 전역의 공유주차면 검색
- 위치·시간·요금을 한 화면에서 비교
- “예약했는데 자리가 없다”는 일이 줄어듦
- 취소·환불·무단주차 신고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

🏠 배정자

- 한 번 등록으로 모든 앱 이용자에게 노출 → 이용률·수익 상승
- 중복 예약 걱정 없이 등록
- 월별 정산서로 수수료와 순수익 확인
- 공유 참여 시 배정 가점·우선 갱신 등 인센티브 검토[23]

🏢 민간 업체

- 자기 앱에서 서울 전체 공유면 판매 → 거래량 증가
- 기존 앱·결제·센서 투자 유지
- 업체 간 정산을 허브가 일괄 처리 (업체끼리 1:1 정산 불필요)
- 경쟁은 ‘구획 확보’가 아닌 ‘서비스 품질’로

🏛 서울시·자치구

- 주차장 신설 없이 주차 공급 확대
- 서울 전체 공유주차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측정
- 특정 업체 종속 없이 공공성 확보
- 무단주차 단속 문자 서비스[38]와 연계해 민원 감소

이미 가능하다는 증거

서울에 이미 있는 것	허브에서의 역할
서울주차정보 (공영·민영 5,027개소, 실시간 주차 가능정보)[10,51]	허브의 지도·데이터 기반. 처음부터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.
서초구 통합 주차포털 (공영주차장 25개소 실시간 현황·사전결제·감면 확인)[25]	자치구 단위 통합 서비스가 이미 작동한다는 사례입니다.
광진구·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시간 공유사업[11,49]	배정자의 빈 시간을 공유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거주자우선주차·그린파킹 IoT 센서 사업[9], 민간 IoT 센서 서비스[40]	실시간 점유 확인 기술이 있습니다. 센서가 없는 면은 정보 신뢰도를 구분해 표시하면 됩니다.
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(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등)[2,48]	개방 부설주차장도 같은 허브에 올려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.

새로운 앱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. 이미 있는 공공 데이터, 이미 있는 민간 앱, 이미 있는 자치구 제도를 **하나의 표준으로 연결**하는 사업입니다.

4 이렇게 추진하면 됩니다

1단계 · 시범

통합 검색

- 여러 업체가 함께 운영 중인 자치구 2~3곳 선정
- 공유면 위치·요금·공유시간·운영업체를 서울주차정보 지도에 표시
- 공유 데이터 표준(구획 식별번호 등) 확정

2단계 · 연계

예약·정산 연결

- 공유시간 1회 등록 → 모든 앱 노출
- 허브 예약 선점으로 이중 예약 방지
- 통합 정산 원장과 배정자 월별 정산서

3단계 · 확산

서울 전역·현장 연계

- 25개 자치구로 확대, 개방 부설주차장 포함
- IoT 센서·무단주차 단속·민원 처리 연계
- 업체·자치구별 성과 정기 공개

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가지

과제	제안
① **참여의 제도적 근거**	업체가 자기 구획을 다른 앱에 열 동기는 약합니다. 기술보다 제도가 먼저입니다. 자치구가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협약을 맺을 때 **허브 연계를 협약 조건**으로 넣고, 필요하면 조례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.
② **정확한 점유 정보**	허브가 예약 선점·확정, 예정 출차시간, 초과 이용을 관리합니다. 센서면·수동 등록면·예약 기반면을 구분해 정보 신뢰도를 표시합니다.
③ **공정한 정산**	거래마다 이용요금과 배분액(이용 업체·배정자 소속 업체·배정자·운영비)을 기록하는 허브 중심 정산을 합니다. 업체끼리 1:1로 정산하면 업체 수가 늘수록 복잡해지므로, 허브 기록을 분쟁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.
④ **예외 상황과 책임**	배정자가 일찍 돌아온 경우, 이용 차량이 시간을 넘긴 경우, 무단주차 단속·견인의 책임 주체를 표준 절차로 정합니다. 실제 민원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깁니다.
⑤ **개인정보 보호**	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업체 간에 주고받는 근거(동의·위탁)를 명확히 하고, 허브는 필요한 최소 정보만 다룹니다.

※ 배정자의 공유 참여는 **자율**이어야 합니다. 유료로 배정받은 주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'공유 의무화' 대신, 배정 가점·우선 갱신·이용료 감면 같은 인센티브로 참여를 늘리는 방식을 제안합니다.

무엇으로 성과를 잴까

등록 주차면 수가 아니라 **실제로 쓰인 시간**으로 평가해야 합니다. 공유 참여 배정자 수, 주차면별 실제 공유시간, 배정자 순수익, 예약 성공률, 이용자 재이용률, 취소·환불률, 무단주차 민원과 처리시간을 업체·자치구별로 공개해 주십시오.

서울시에 요청드립니다

1. 서울시 주도의 **공유주차 통합 허브** 구축을 검토해 주십시오.
2. 자치구·공유주차 업체·배정자가 함께하는 **협의체**를 만들어 데이터 표준과 정산 규칙을 정해 주십시오.
3. 여러 업체가 함께 운영 중인 자치구에서 **시범사업**을 시작해 주십시오.

※ 근거 자료

[2] 서울시,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안내(2026년도 기준) — news.seoul.go.kr/traffic/archives/1853

[9] 내 손안에 서울, 거주자우선주차장·그린파킹 IoT 센서 — 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1216901

[10] 내 손안에 서울, 서울주차정보 5,027개소 정보 제공(2025.12 기준) — 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17547

[11] 광진구,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서비스 — www.gwangjin.go.kr/portal/main/contents.do?menuNo=200619

[23]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배정기준 개선 안내(공유주차 참여율 제고) — welfarehello.com 동네소식

[25] 서초구, 통합 주차포털 안내 — www.seocho.go.kr/site/seocho/04/10415061200002026080502.jsp

[31] 인천교통정보센터, 공영주차정보 연계 공개 API — www.incheon.go.kr/traffic/TR060101

[38] 내 손안에 서울, 거주자우선주차 무단주차 '10분 후 단속 예정' 문자 — 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15301

[39] 강남구 24시간 스마트 공유주차(파킹프렌즈·파킹위드) — www.mediasearch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629

[40] 파킹프렌즈 IoT 센서 실시간 주차정보(앱스토어 소개) — apps.apple.com/kr/app/id1180899976

[47] 내 손안에 서울, 거주자우선주차장 20% 공유 시 1.2조 원 절감(2018) — 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1171918

[48] 서울시, 2026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— news.seoul.go.kr/traffic/archives/513697

[49] 강남구, 유휴부지 거주자우선주차장 49면 및 공유주차 — www.gangnam.go.kr/board/B_000031/1075151/view.do

[51] 서울시, 서울주차정보 서비스 안내 — news.seoul.go.kr/gov/archives/87197

[52]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— urban.seoul.go.kr/UpisArchive/DATA/PWEB/STATIC/2040_report.pdf

[59] 동작구의회 회의록(모두의주차장·파킹프렌즈 2개 업체 공유) — assembly.dongjak.go.kr/viewer/minutes.do?uid=19812

[67]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(3개 업체 앱 운영으로 이용 혼선) — council.jungnang.go.kr

자료 번호는 제안자의 조사 노트 번호를 그대로 썼습니다. 업체가 스스로 공개한 수치(협약 자치구 수, 운영 면수 등)는 공식 통계와 다를 수 있어 본문에서 판단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. 업체별 수수료율·정산비율은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, 협의체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남겨 둡니다.